

임진왜란시 朴毅長의 慶尙左道 방위활동*

張俊浩**

1. 머리말
2. 경상좌도 전투양상과 경주성의 失陷
3. 영전성 수복 전투와 경주성의 탈환
4. 경상좌도 방위활동의 전개
5. 맺음말

1. 머리말

기존의 임진왜란에 대한 연구는 의병운동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것은 임진왜란이 일본의 일방적인 승리라는 식민주의 역사학을 극복하기 위한 민족주의적 분위기 속에서 연구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학계에서는 주로 조선이 승리한 전투 위주로 관심을 가져왔다. 따라서 임란 초기 일본군의 침략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관군의 역할은 도외시되었고, 자발적으로 일어나 일본 정규군과 싸워 이긴 의병들을 대항군으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로

* 본 논문은 2008년 8월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서 받은 석사학위논문 「임진왜란시 朴毅長의 慶尙左道 방위활동」을 수정·보완한 것임.

** 서강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관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임란기 경상좌도 지역을 의병항쟁을 통해서 이해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경상좌도 관군 박의장에 대한 연구는 이형석이 『壬辰戰亂史』를 저술하면서 처음 학계에 소개되었다. 이형석은 『亂中雜錄』을 인용하여 제1차 경주성 전투를 서술하면서 蔡濟恭의 『樊巖集』을 인용하여 박의장에 대해 약술하였다. 또한 그는 제1차·2차 경주성 전투와 정유재란기 제1차 울산성 전투를 서술하면서 박의장이 참전한 전투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¹⁾ 그러나 이형석의 연구는 임진왜란기 전반에 걸친 지역전투사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박의장의 『觀感錄』²⁾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가 있다.

임란기 경상좌도 의병에 관한 연구는 문수홍에 의해서 처음 시작되었다. 문수홍은 의병의 관점에서 영천성과 경주성 수복 전투에 대해 서술하였다.³⁾ 그 후 최효식은 경상좌도 지역의 전투들에서 전공을 세운 의병장들의 활약상을 규명한 다수의 논문과 저서를 발표하였다.⁴⁾ 그의 연구에서 박의장이 일부 다루어졌으나, 경주지역 의병장들과 협조하여 전공을 세운 정도를 언급하였다. 최효식은 의병장들의 문중 자료를 이용하여 경상좌도 지역 개별 전투를 상세하게 다루었으나, 후대의 문집자료를 사료비판 없이 그대

- 1) 이형석, 『壬辰戰亂史』 上·中·下, 壬辰戰亂史刊行委員會, 1974(上 : 256~258쪽·中 : 514~516쪽·下 : 1054~1063쪽). 이형석은 경주성 전투를 시기별로 제1~3차 경주성 전투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반면에 필자는 이형석과 달리 제1차 전투는 경주성의 실함으로, 제2차 경주성 전투는 제1차 경주성 탈환 전투로 하였다. 또한 제3차 경주성 전투는 제2차 경주성 탈환 전투로 하여 시기와 성격별로 서술하였다.
- 2) 『觀感錄』은 박의장의 문집으로 국내에는 장서각 소장본(청구기호 B91 112 1~3)과 규장각 소장본(청구기호 古 4655-50. v1~3)이 전해지고 있다. 이 밖에 일본 사가켄(佐賀縣) 나고야쵸(名護屋城)박물관 소장본인 『觀感錄 附東槎錄』이 전해지고 있다. 『관감록』에 대한 해제는 다음 글에 자세하다.(장준호, 「임진왜란시 朴毅長의 慶尙左道 방위활동」,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8.)
- 3) 문수홍, 「壬亂 중 慶尙左道地方의 義兵活動 : 壬辰年 永川·慶州城 收復戰을 中心으로」, 『素軒南都泳博士華甲紀念 史學論叢』, 소헌남도영박사화갑기념사학논총간행위원회, 1984.
- 4) 최효식, 「임진왜란기 경주전투」, 『慶州史學』 제10집, 慶州史學會, 1991 : 『慶州府의 壬亂抗爭史』, 慶州市文化院, 1993 : 「壬亂 初 慶州 義兵活動 研究」, 『慶州史學』 제16집, 慶州史學會, 1997 : 「慶州府의 壬亂義兵기록에 관한 연구」, 『新羅文化』 제19집, 東國大學校新羅文化研究所, 2001 : 『임란기 경상좌도의 의병항쟁』, 국학자료원, 2004.

로 인용하고 있다. 또한 의병을 중심으로 서술하여 박의장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門中 차원에서 박의장의 전공을 서술한 예병주의 『무의공 박의장 장군』⁵⁾이 있다. 이 책은 『관감록』을 인용하여 박의장의 임란기 전공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그러나 문중에서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저술된 것으로 학계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밖에 한명기는 『임진왜란과 한중관계』에서 명군의 조선 주둔에 따른 민폐와 사회상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박의장이 경주 토병의 군량 부족과 수급 상황의 어려움을 토로한 점을 기술하였다.⁶⁾ 또한 노영구는 임란 극복의 주체 가운데, 특히 의병의 역할을 절대시한 기존의 인식⁷⁾이 역사적으로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하였다.⁸⁾ 즉, 기존의 의병항쟁 위주의 연구에서 관군⁹⁾의 역할을 재검토하였는데, 그 과

5) 예병주, 『무의공 박의장 장군』, 겨레, 1999.

6)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1999, 142쪽.

7) 나종우의 논문은 기존인식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즉, 나종우는 임란을 맞아 조선 관군은 싸울 준비도 되어 있지 못했으며, 조직적인 관군은 있을 수 없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國土를 수호하려는 자생적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꿈틀거렸고, 그들이 의병으로 조직되어 官軍을 대신하여 전국 각 처에서 봉기하였다고 하였다(나종우, 『嶺·湖南 義兵活動의 比較檢討』, 『경남문화연구』 제14호, 경상대 경남문화연구소, 1992). 또한 송정현도 조선관군이 일본군과의 전쟁에서 연전연패를 당하였고, 관군의 무기력함에 백성들이 중요하였다고 하여 부정적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군을 물리치기 위하여 또는 향토에 침입하려는 일본군을 막고 나아가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하여 각 지방에서 의병이 봉기하였다고 지적하였다(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 29, 국사편찬위원회, 1995).

8) 노영구, 「壬辰倭亂 초기 양상에 대한 기존 인식의 재검토」, 『한국문화』 제31집, 한국문화연구소, 2003, 175쪽. 노영구는 임진왜란에 대한 육지 전투에서 의병에 대한 과도한 해석으로 인해 당시 전란 극복의 주요한 한 주체인 조선 정부의 동향과 조선의 정규군인 官軍의 역할은 실질적으로 死藏되는 결과마저도 나타나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심지어 조선은 ‘군대가 없는 나라’라는 인식마저도 낳게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9) 임란기 관군에 대한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장학근, 「임진왜란기 官軍의 活躍」, 『韓國史論』 제22집, 국사편찬위원회, 1992 ; 宋正炫, 「壬辰倭亂論: 官軍과 義兵의 역할 문제」, 『全南史學』 第8輯, 全南史學會, 1994 ; 이장희 외, 『임진왜란과 권율장군』, 전쟁기념관, 1999. 한편, 박재광은 임란기 관군의 연구가 가장 부진한 원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임란 초기 전투에서 관군이 연전연패를 거듭한 이유를 군사체제의 총체적 부실에서 찾는 견해가 우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전쟁시 정규군의 활동은 당연한 역할이었다는 점과 명군의 파견과 함께 별다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으리라는 판단도 관군 연구가 적었던 배경이었음을 지적하였다(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편, 『임진왜란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5, 39~40쪽).

정에서 박의장의 역할이 일부 언급되었다.

필자는 그동안 학계에서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경상좌도 관군 박의장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전개하였고, 이후 우인수가 「務安 朴氏 寧海派와 武毅公 朴毅長」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¹⁰⁾ 박의장은 1591년 慶州判官에 부임한 후 1599년 慶州府尹에서 체임될 때까지, 경주라는 동일 지역에서 9년간 활약하였다. 그는 경상좌도 다른 장수와는 달리 자신의 임지를 빼앗겼음에도 재탈환하였다. 경주성 탈환 후 지속적인 방위활동으로 일본군의 점령정책과 再北進 계획에 타격을 주었다. 그의 임란기 행적은 관군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본고에서는 임란시 경상좌도의 상황을 의병항쟁 위주로 파악한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하여 관군 활동의 측면에서 박의장의 활약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가 활약한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관군의 역할과 활동을 究明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임란 초기 관군의 부정적 이미지와 역할을 재검토하여, 경상좌도 관군 연구의 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2. 경상좌도 전투양상과 경주성의 失陷

(1) 초기 전투 양상

1592년(선조 25) 4월 13일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가 이끄는 1만

10) 필자는 석사학위논문에서 박의장의 가계와 생애를 다루었고, 관군으로서 박의장이 세운 주요한 전공을 『觀感錄』과 『亂中雜錄』, 『再造藩邦誌』, 『宣祖實錄』 등을 통해 비교 검토하였다. 또한 의병장들과 차별화되는 지방관 박의장의 경주부윤으로서 활약을 고찰하였다. 즉, 관군 지휘관으로서의 치적과 목민관으로서의 치적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장준호, 「임진왜란시 朴毅長의 慶尙左道 방위활동」,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8). 한편 우인수는 「무안 박씨 영해파의 형성과 박의장의 임란 구국 활동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특히 박의장의 임란 구국 활동을 왜군 격퇴의 선봉장이라는 측면과 경주의 목민관이라는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이와 더불어 박의장의 후손에 대해 기술하였다(우인수, 務安 朴氏 寧海派와 武毅公 朴毅長, 『朝鮮史研究』 제17집, 2008. 10).

8천의 일본 제1군은 경상좌도 동남 해안의 최전방 관문이자, 군사적 요충지인 釜山浦鎮¹¹⁾에 상륙했다. 조선 조정은 일본의 도발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미흡한 상황에서 임진왜란을 맞았다. 일본 제1군은 부산성을 공격하였고, 일본군에 맞서 분전하던 釜山僉使 鄭撥은 전투 중 전사했다.¹²⁾ 4월 14일 부산성을 함락시킨 일본군은 西生浦와 多大浦를 공격하였다.¹³⁾ 대대포침사 尹興信이 대항하여 싸웠으나 전사하였다.¹⁴⁾ 일본 제1군은 4월 15일 북상해 東萊에 침입했다. 東萊府使 宋象賢은 일본군의 침략 소식을 듣고 동래부의 소속 군사와 백성들, 인근 지역 군사를 소집하여 일본군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慶尙左兵使 李珪은 일본군이 침입했다는 보고를 받고, 좌병영의 군사를 이끌고 동래성을 구원하기 위해 출전했다. 한편, 경주판관 박의장은 이각의 수하 장수로서 경주의 병사를 거느리고 막하로 달려갔다.¹⁵⁾

그러나 이각은 부산포진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에 겁을 먹고 송상현의 간청에도 동래성을 구원하지 않았다. 송상현은 동래성을 지키기 위해 분전하였으나 반나절 만에 성은 함락되었다.¹⁶⁾ 이각은 일본 제1군의 적세가 강한 것을 보고 중로에서 퇴각하였다.¹⁷⁾ 일본 제1군의 대대적인 침략에 의해 부산진과 동래성이 연이어 함락당하자, 고립된 慶尙左水使 朴泓은 일본군의 기세에 밀려 左水營을 버리고 달아났다. 박홍의 휘하 장수들도 성을 버리

11) 부산포진은 동래현의 관방으로 현의 남쪽 21리에 있으며, 좌도수군 첨제사의 진영이 있다. 관할하는 곳으로는 豆毛浦 · 海雲浦 · 鹽浦 · 甘浦 · 包伊浦 · 漆浦 · 烏浦 · 丑山浦 · 多大浦 · 西生浦가 있다. 석성이 있는데, 둘레는 1천 6백 89척이고, 높이는 13척이며, 상주하는 倭戶가 있었다(『新增東國輿地勝覽』 경상도, 동래현 관방조).

12) 『宣祖實錄』 卷26, 宣祖 25년 4월 13일(임인). 부산성 전투와 관련한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정중환, 「壬辰倭亂時 釜山地區 전투」, 『군사』 제2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1; 金錫禧, 「壬辰倭亂과 釜山 抗戰」, 『항도부산』 제9호,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1992.

13) 北豊山人, 『文祿慶長 朝鮮役』, 博文社, 1894, 23쪽.

14) 『宣祖修正實錄』 卷17, 宣祖 25년 4월 14일(계묘).

15) 『觀感錄』, 『行狀草記』, “壬辰四月 倭賊入寇 兵使李珪 聞變領兵往東萊 府君亦領慶州兵馳赴珪幕下.”

16) 동래성 전투에 대한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최효식, 『임진왜란기 영남의병연구』, 국학자료원, 2003; 최효식, 『임란기 경상좌도의 의병항쟁』, 국학자료원, 2004; 「임란 초기 동래성의 항전에 대하여」, 『新羅文化』 제26집,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2005.

17) 『宣祖修正實錄』 卷26, 宣祖 25년 4월 14일(계묘).

고 이탈하였다.¹⁸⁾

이각은 동래성을 구원하지 않고 도망하여 蘇山驛¹⁹⁾에 주둔하였다가 梁山을 거쳐 彦陽으로 퇴각하였다. 각 고을의 수령들은 동래가 함락된 뒤로 소문만 듣고도 달아났다. 이각과 박홍이 언양에서 승陣하여 주둔하였을 때, 정탐인은 적세가 이미 가까이 이르렀다고 보고하였다.²⁰⁾ 이각은 보고를 듣고 적의 기세에 놀려 좌병영으로 후퇴하고자 하였다.²¹⁾ 이각은 전투도 제대로 치르려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였다. 이러한 이각의 태도에 박의장은 침략한 일본군에 맞서 항전할 것을 직언했다.²²⁾ 그러나 이각은 북상하는 일본군을 맞아 싸우려 하지 않고 도망할 구실만을 찾고 있었다. 더군다나 이각은 일본군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풍문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동래성을 함락시킨 일본군이 선택할 수 있는 진격로는 두 가지로, 북상해서 양산으로 가는 것과 또 하나는 機張으로 진격하는 것이었다. 일본 제1군은 4월 16일 박홍이 버린 좌수영을 접수하고 곧바로 기장을 함락시켰다. 일본 제1군은 기장을 함락하고, 4월 17일 양산을 함락시켰다. 양산을 함락한 일본 제1군의 예상 진격로는 3가지였다. 첫째 密陽으로 진격하는 것과 두 번째 언양으로 곧바로 북상하는 것이었다. 세 번째는 蔚山 左兵營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18) 『白雲齋實記』 卷2, 行狀. “辛卯倭聲日急 從左水使朴泓於釜山 隨事盡言 明年壬辰四月 倭大舉入寇 時昇平久 民不知兵 洵無守禦意 公請撤入城外 家屋 爲拒守計 東萊釜山次第陷 水營勢孤 泓庸材樞榘 不敢發一矢向賊 引兵出 城 公知不可與共事 卽棄歸.” 훗날 영천성을 수복하는 전공을 세운 의병장 권응수는 일본군이 부산포에 상륙하였을 당시 경상좌수사 박홍의 휘하 장수로 있었다. 박홍이 좌수영을 버리고 도망하자, 권관 권응수 역시 퇴각하였으나 후에 永川에서 거병하였다.

19) 소산역은 동래현 북쪽 15리에 위치한 지역이다(『新增東國輿地勝覽』 권23, 경상도, 동래현).

20) 『再造藩邦志』 卷1, “自東萊之陷 郡縣望風奔潰 左水使朴泓與右兵使李珣 合陣於彦陽 已而珣奔還兵營.” 이 기사를 통해서 경상좌수사 박홍이 좌수영을 버리고 기장과 양산을 거쳐서 언양에서 이각의 부대와 합류하였음을 알 수 있다.

21) 『觀感錄 附東槎錄』, 『行狀草記』, “珣見賊勢熾盛 已自畏怯 退陣於中路 忽有偵探人 來傳賊鋒已犯近境 珣大駭失 措 卽欲撤還本營.”

22) 『觀感錄 附東槎錄』, 『行狀草記』, “府君率諸將固爭曰 公受國重寄 遭此大難 當誓心戮力 效死勿去 奈何賊未至 而先懷退遁之計耶 珣勃然大怒曰 我欲守城 汝敢謂我退遁耶 卽命斬之 府君曰 我言爲國非爲私也 回抗言不撓 珣色沮爲之霽怒俄 聞賊報爲虛 深懷慚恨 持盃慰謝.”

密陽府使 朴晉은 동래로부터 돌아와 鵲院의 좁은 길목을 가로막아 방어하려 했다.²³⁾ 일본 제1군은 기장과 좌수영을 점령·복상하여 울산과 양산 등지로 흩어져 약탈하고, 4월 17일 黃山棧에 이르렀다. 박진은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작원의 방어계획을 세웠으나, 작전을 미리 간파한 일본군의 공격으로 실패하였다.²⁴⁾ 박진은 밀양으로 돌아와, 적은 수의 군사로 대적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모든 창고와 兵器를 불태우고 도망하였다.²⁵⁾

4월 17일 조정에 邊報가 도착하자, 선조는 李鎰을 巡邊使로 삼아 정예병을 이끌고 尙州로 내려가 일본군의 복상을 막도록 하고, 申砮을 都巡邊使로 삼아 응원하도록 하였다.²⁶⁾ 경상좌도의 장수들은 일본군의 침략을 맞아 대부분 제대로 된 전투도 치르지 않고 자신의 임지를 버리고 도망하였다.²⁷⁾ 박진은 밀양성을 버리고 경상우도인 漆原과 咸安을 거쳐 慶尙右兵使 金誠一의 휘하로 들어갔다.²⁸⁾ 일본 제1군은 다음날인 4월 18일 밀양에 무혈 입성하였다.²⁹⁾ 일본 제1군은 개전 4일 만에 여러 성을 함락시키고 후속

23) 『再造藩邦志』 卷1. “十六日 賊散入蔚山梁山等地 大肆劫掠 翌日至黃山棧 密陽府使朴晉 自東萊奔還 欲阻鵲院 隘路以御之.” 작원은 양산에서 밀양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지역이다. 동으로는 內浦津이 위치한 하천의 지류가, 남쪽으로는 낙동강이 1차 방어선의 역할을 해준다. 또한 북으로는 甘勿里山이 가로막고 있어, 밀양으로 복상하는 일본군을 방어하기에 최적지로 생각된다. 한편 일본군이 진격한 황산잔은 작원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지역이다.

24) 『再造藩邦志』 卷1. “賊陷梁山至鵲院 見有守兵 從山後乘高 蟻附散漫而下 守隘者望之皆散走 晉馳還密陽 孤軍不能敵.”

25) 『宣祖實錄』 卷27. 宣祖 25년 6월 28일(병진) : 『再造藩邦志』 권1. “縱火焚軍器倉庫 棄城入山而據之 賊遂入 密陽.”

26) 『宣祖實錄』 卷25. 宣祖 25년 4월 17일(병오) : 國立晉州博物館 編, 『壬辰倭亂 史料叢書』 권1, 『懲愆錄』, 國立晉州博物館, 2001, 27쪽. “十七日早朝邊報始至 乃左水使朴泓狀啓也 大臣備邊司會賓廳請對不許 卽啓請 以李鎰爲巡邊使下中路 … 上卽召申砮問之 遂以砮爲都巡邊使.”

27) 『宣祖實錄』 卷27. 宣祖 25년 6월 28일(병진). 慶尙右道 招諭使 金誠一은 일본군의 침입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비겁한 경상좌도 관군들의 대응에 대해서 “한 도(道)의 주장(主將)이 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 그 휘하 장졸들은 어찌 도망하거나 흩어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비판하였다.

28) 『宣祖實錄』 卷26. 宣祖 25년 4월 13일(임인). 이 실록기사에는 경상우병사 김성일과 박진이 진주에서 일본군을 맞서 싸운 기록이 있다. 이를 통해서 박진이 밀양을 이탈해서 경상우도인 진주까지 퇴각하여 김성일 휘하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29) 北豊山人, 앞의 책, 24쪽

부대의 조선 상륙을 위한 거점을 마련하였다.

한편, 이각은 동래성을 구원하기 위해 출전했으나 전투도 한 번 해보지 않고 퇴각하여 좌병영으로 되돌아왔다. 좌병영의 관군은 일본 제1군이 밀양으로 북상함에 따라 전열을 정비하고 임전태세를 갖추기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각은 일본 제2군을 맞서 싸울 의지도 계획도 없었다.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가 이끄는 일본 제2군은 4월 18일 부산에 상륙하였다. 가토 기요마사는 20일에 양산을 경유하여 언양에 입성,³⁰⁾ 울산 좌병영을 향해 진격했다. 이각은 박의장에게 좌병영 방어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경주성을 방어하도록 명령을 내렸다.³¹⁾

박의장은 이각의 명령을 받고 임전태세를 갖추기 위해 경주로 향했다. 4월 19일 무렵 좌병영에는 13읍의 군사들이 모두 도착하여 성에 들어갔으나, 이각은 서산으로 나가 진을 치고자 하였다.³²⁾ 그리하여 이각은 좌병영을 이탈하여 쫓을 탈출시키고, 좌병영을 버리고 도망쳤다. 언양에서 합류한 좌수사 박홍은 경주로 퇴각하였다.³³⁾

이각이 이탈한 후 좌병영은 내중지란을 일으켜 4월 20일 일본군 제2군의 공격을 받아 함락되었다. 가토 기요마사·나베시마 나오시게(鍋島直茂) 등이 이끄는 일본 제2군은 4월 18일 부산에 상륙, 양산을 경유하여 언양과 울산 좌병영을 함락시킨 후 나고야(名護屋)의 부교슈(奉行衆)에 다음과 같은 書狀을 보냈다.³⁴⁾

-
- 30) 對外關係史總合年表編集委員會 編, 『對外關係史總合年表』上, 吉川弘文館, 2005, 543쪽.
 31) 『觀感錄 附東槎錄』, 『行狀草記』. “及至邊郡連陷 賊兵漸近 珪令府君歸曰 今賊勢如此 兵營城池決難保守 公等可速歸 勉圖遮載之策 吾亦從此尾矣.”
 32) 『亂中雜錄』 卷1, 壬辰上. “左道之賊進向蔚山左兵營等地 李珪出陣于西山 時十三邑兵齊到入城.” 『난중잡록』에는 울산 좌병영의 상황이 4월 21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일본 측의 기록을 통해서 4월 20일(만력)이었음을 알 수 있다. : 對外關係史總合年表編集委員會 編, 위의 책, 543~544쪽 참조.
 33) 『再造藩邦志』 卷1. “已而珪奔還兵營 先出其妾 城中洶洶 軍中一夜四五驚 珪乘夜亦脫身遁去衆軍大崩 泓退屯慶州.” : 『宣祖修正實錄』 권26, 宣祖 25년 4월 14일(계묘).
 34) 中野 等, 『侵攻した 日本將兵の目に映った朝鮮社會』, 『임진왜란과 국가위기의 문화정치학』, 규장각국제위크숍, 2008. 5월 23~24일, 발표문요지 64쪽.

내일은 경주로 입성할 예정인데, 오늘까지 3개소의 성(양산·언양·울산³⁵⁾)은 어느 곳이나 朝鮮側은 무저항으로 퇴거해 왔기 때문에, 생각 외로 순조로웠다. 이러하다면, 열흘도 안 되어서 한성에 도달할 것이다. 다음으로 군대에게 제공해야 하는 兵糧에 대한 것인데, 일본 국내에도 이와 같이 풍부한 병량을 본 적이 없다고, 부하의 부대에 이르기까지 모두 만족하고 있다. 후속하는 군세의 병량을 마련하기 위해 점령한 성들에 부대를 남겨놓고 가도록 고니시 유키나가와 계획을 세웠지만, 이와 같은 병량 사정이 양호하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여기서, 고니시의 병력이 中海道를 침공함으로써 우리는 안동을 경유해서 한성으로 육박하고자 한다. 또 성부터 퇴거했던 조선 장병들에 대해서는 배어 죽여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살려둔다.³⁶⁾

이와 같이 조선 관군은 일본 제2군의 공격에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군이 생각한 것과 달리 순조롭게 세 개의 성이 함락되었다. 또한 일본군은 예상외로 풍부한 군량에 대해서도 놀라워했다. 가토 기요마사는 조선 각지에 비축된 군량이 풍부하여, 일본 제1군의 진격방향과는 다른 진격로를 선택하였다. 반면, 일본 제1군은 밀양에 입성하여 淸道로부터 慶山을 경유하여 북상하였다.³⁷⁾ 4월 21일 제1군은 大丘를 함락시키고³⁸⁾ 漆谷을 거쳐 4월 23일 仁同에 着陣하였다. 소오 요시토시[宗義智]의 從軍僧 텐케이[天荊]는 인동 주변의 조선 농민에게 還住하여 농사에 힘쓸 것을 曉諭

35) 中野 等, 앞의 발표문요지에는 3개의 성이 梁山 · 彥陽 · 慶州로 되어 있다. 그러나 4월 19일 양산을 경유하여 언양을 함락하였고, 4월 20일 울산 좌병영을 함락시킨 일본 제2군의 진격방향과 그 결과를 볼 때 필자의 오류로 생각된다. 일본 제2군이 경주 진격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전에 함락시킨 3개의 성에 경주가 포함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본고에서는 가토 기요마사 등이 나고야의 부교슈에게 보낸 書狀이 일본력으로 4월 19일(萬曆 4월 20일)에 작성되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울산 좌병영을 함락한 직후에 작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일본 제2군의 조선 상륙 후 진격방향과 서장의 작성 시점을 고려할 때 경주로 誤記된 성은 울산 좌병영일 것으로 생각한다.

36) 中野 等, 위의 발표문요지, 64쪽.

37) 『亂中雜錄』卷1, 壬辰上. “中道之賊 自淸道屠過慶山.”

38) 北豊山人, 앞의 책, 24쪽.

하에서도, 일본군의 복상을 조금만 저지할 수 있다면 수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죽음으로 경주성을 지킬 것을 맹세하고 전의를 불태웠다.⁴¹⁾

박의장과 이수일은 모든 장수와 군사들에게 명령해 성문을 굳게 닫고 농성전에 들어갔다.⁴²⁾ 반면에 일본 제2군은 4월 20일 울산 좌병영을 함락시키고, 4월 22일에 경주로 진격하였다. 『관감록』에는 4월 21일경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境內에 피난가는 사람이 집을 불살라 연기가 하늘에 가득하여 적병이 오는 지 알 수 없었다. 정탐자 또한 달아났다. 그러므로 적이 이미 州界를 침범하였으나 성 안에서 알지 못하였다. 갑자기 10리 밖에서 砲聲이 들리니 모든 장수와 군사들이 무기가 견고하지 못함을 보고, 적의 칼끝이 갑자기 이르니 모두 성을 넘어 도망가서 무너지고 성에 있는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았다.⁴³⁾

일본 제2군 가토 기요마사 등이 경주성을 함락하고 나고야에 보낸 서장에는 경주성 전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 41) 『觀感錄 附東槎錄』, 『行狀草記』. “公其戮力 府君知事已去 與長鬢縣監李守一相誓曰 兵孤世弱器械俱乏 以此空城 萬無抵當之里 而所翼賊兵之來 或遲數日 則庶有收拾之路 公我二人 死生同之可乎 李曰敢不如約.”
- 42) 『觀感錄 附東槎錄』, 『行狀草記』. “卽命諸將士 分屬雉堞 閉門守之.” 4월 19일 양산을 경유하여 언양까지 복상한 일본 제2군은 4월 20일경에 울산 좌병영을 향해 복진하였다. 울산 좌병영에서 일본 제2군과의 전투에 대한 기사는 일본 측 기록에 보이지 않고 있는데, 오직 『亂中雜錄』에 울산 좌병영에서의 전투가 기록되어 있다. 『난중잡록』에 따르면 이각이 성을 버리고 도망하였음에도 좌병영에는 13개 읍의 군사들이 주둔하고 있었다. 좌병영 수성군 내부에서는 이각의 이탈로 인한 좌중지란의 모습도 보이고 있으나, 安東判官 尹安性은 복상하는 일본군에 맞서 전투를 벌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일본 측 자료에는 일본 제2군이 4월 19일 언양을 함락하고, 경주가 함락되는 4월 21일까지 3일간의 행적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난중잡록』의 기사를 통해서 좌병영에서 조선군의 저항이 있었으며, 좌병영을 함락한 후 경주로 진격하기 위해 전열을 가다듬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43) 『觀感錄 附東槎錄』, 『行狀草記』. “時境內避難人 焚燒其廬舍 烟焰漲天 不能後望 偵探者亦走不服 故賊已犯州境 而城中不知 忽聞砲聲在於十里外 諸將士見其器械未固 而賊鋒猝至 皆繡城洩潰 在城者無幾.”

慶州城을 공격했는데 성 안은 대단히 혼란스러웠으나, 진압하는 데에는 그다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성에서 퇴거한 조선의 장병도 경주에서 籠城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쪽의 병력은 상당한 규모에 달하였고, 3~4천의 적을 공격해서 멸하였다. 산중으로 도망간 적을 찾기 위해 오늘까지 여기에 머무르며 산중을 수색하였다. 내일은 이곳에서 출발하여 다음 공략지점인 영천으로 향하는데 그곳도 경주가 섬멸된 정세가 전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영천의) 장수도 달아났을 것이다. 각지의 성마다 병량이 대량으로 있으므로 (관리를 위해) 병사를 남겨두어 히데요시 직할군의 병량을 준비하고자 한다.⁴⁴⁾

위의 서장을 통해서 경주성에는 이미 함락된 지역의 병사들도 성에 들어와 농성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병력 수도 박의장과 이수일의 관군 병력을 포함하여 3~4천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관감록』과 『난중잡록』 등 조선 측의 기록에는 경주성 전투에 대한 언급은 대체로 소략하고, 조선군의 병력 규모도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

경주는 일본 제2군의 복상에 따른 민심의 동요로 성 내부에서도 탈영병이 발생하는 등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주성의 병력과 박의장 軍의 사기로는 가토 기요마사가 이끄는 일본 제2군 2만 2천여 명의 군대를 맞아 농성전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박의장과 이수일은 각각 군사를 내어 가토 기요마사 軍과 맞서 싸웠으나 중과부적으로 패하여 경주성을 내주고 각각 흩어져 퇴각하였다.⁴⁵⁾

44) 中野 等, 위의 발표문요지, 64쪽.

45) 『亂中雜錄』 卷1, 壬辰 上에는 경주성 전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경주부윤 윤인함은 西遷해 있고, 경주판관 박의장과 장기현감 이수일 등은 성 안에 있으면서 왜적의 기병 한 명이 동문 밖에까지 달려와 패문을 쫓아 놓고 갔다. 그것을 가져다 보니 “판관은 속히 성을 나와 명령을 들도록 하라”고 쓰여 있어 박의장 등은 성을 버리고 도망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반면 『觀感錄』 『府民願留狀』에는 부민들이 박의장의 경주부윤 재임을 원하는 진정을 올려, 박의장은 경주판관으로서 34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적의 칼날에 부딪쳐서 이 성을 떠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 측의 기록에는 3~4천의 조선군이 경주성에서 농성전을 펼쳤으나 함락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경주성 실함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실 검토가 요구된다.

고니시 유키나가의 일본 제1군은 대구와 仁同城을 함락하고, 4월 24일 북상하여 善山에 이르렀다.⁴⁶⁾ 4월 23일 가토 기요마사의 제2군은 경주로부터 북상하여 영천을 함락하고 安東·新寧·義興·軍威·比安 등의 성을 모두 함락시켰다.⁴⁷⁾ 4월 25일 순변사 이일은 선산에서 상주로 북상하는 고니시 유키나가 軍을 맞아 싸웠으나, 종사관 朴麓·尹暹 등이 모두 전사하고 單騎로 달아나 죽음을 면하였다.⁴⁸⁾ 제1군은 상주에서 이일의 부대를 격파하고 聞慶에 이르렀고, 가토 기요마사의 제2군은 비안에서 龍宮 河豐津을 건너 문경에서 제1군과 합류하였다.⁴⁹⁾ 신립이 이끄는 조선군은 북상한 일본 제1·2군을 맞아 충주에서 맞서 싸웠으나 전사하였다.⁵⁰⁾

3. 영천성 수복 전투와 경주성의 탈환

일본 제2군은 4월 23일에 영천성을 점령하고, 신녕현과 비안현, 용궁현, 豐津을 거쳐 忠州 쪽으로 북진하였다. 당시 安東府使 鄭熙績은 도망치고, 左防禦使 成應吉과 助防將 朴宗男은 義興에 주둔하고 있었으나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였다.⁵¹⁾

박의장은 경주성에서 일본 제2군 가토 기요마사에게 패한 후, 경주를 탈환하기 위해서 竹長縣에 임시로 주둔지를 마련하였다. 박의장은 죽장현에서

46) 北豊山人, 앞의 책, 24쪽.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끄는 일본 제1군은 4월 14일 부산진성 전투 이래 불과 10일 만에 선산까지 이르렀다.

47) 北豊山人, 앞의 책, 24쪽 참조. 가토 기요마사군의 진격로는 경주 - 영천 - 신녕 - 의흥 - 군위 - 비안 - 안동으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2일 동안에 신속하고 빠르게 북상하였다. 따라서 가토 기요마사 군은 제1군이 선점한 부산진에 상륙한 18일 이후 불과 6일 만에 안동까지 진격하였던 것을 보면 진격과정 중에 경주성에서 박의장의 항전 이외에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48) 『宣祖實錄』 卷26, 宣祖 25년 4월 17일(병오) : 北豊山人, 앞의 책, 24쪽.

49) 北豊山人, 앞의 책, 24쪽.

50) 國立晉州博物館 編, 앞의 책, 39쪽. “賊兵入忠州 申砲迎戰敗績 而死諸軍大潰.”

51) 이형석, 『임진전란사』 上, 256쪽.

흩어진 백성과 군사를 불러 모아 전열을 재정비하였다. 대장간을 설치하여 화살 등의 무기를 만들어 전력을 보강하였다. 또한 박의장은 패전의 경험을 통해서 지형과 지물을 이용한 유격전으로 경주에 주둔하였던 일본군을 괴롭혔다.⁵²⁾

당시 경상좌도는 거의 모든 지역이 일본군에 의해 점령당하였고, 점령지는 주둔한 일본군에 의해 지속적으로 약탈되었다. 약탈한 물건은 우마를 통해 북상 진격로에 설치된 연결성(つながしろ)⁵³⁾으로 운반해 군수물자를 보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상좌도의 장수들은 모두 도망하여 일본군의 약탈과 방화에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⁵⁴⁾

한편 권응수는 경상좌도 永川에서 거병하여 의병을 일으켰다. 당시 영천은 일본군의 약탈과 방화에도 모자라, 영천 官奴 希孫 등 2백여 명이 산과 들을 오가며 약탈을 하고 일본군과 내통하기도 하였다.⁵⁵⁾ 이러한 상황에서 권응수는 영천의 치안 부재 속에서 대의로써 효유하고 주변 의병장들의 협조를 얻어 영천성 탈환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밀양부사에서 경상좌병사로 승진한 박진은 일본군을 피해 靑松 雲門山에 주둔하고 있을 뿐, 적극적인 호응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의병장들을 억제하려 하였다.⁵⁶⁾

7월에 권응수 등의 의병장들은 경상우도 초유사 김성일에게 의병장들의 거병 사실을 알리고, 節制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⁵⁷⁾ 김성일은 권응수를 의

52) 『觀感錄 附東槎錄』, 『行狀草記』, “稍有膽氣者 無不影從 於是治鐵箭 守兵分屯 別擇智勇之士 設伏要害之處 或遏截之 或尾擊之夜 則列火峰頭晝 則馳突城外 由是據城之賊 稍戢憑陵之氣 不敢大肆搶掠.”

53) 일본군은 점령지역에 일부의 군사를 배치하고 연결성을 통해서 진격로의 안정을 도모했다. 한성 함락 이후에는 점령정책이 실시되는 거점이 되기도 하였다. 일본군의 경상좌도 점령정책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 자세하다(장준호, 앞의 논문, 36~38쪽 참조).

54) 『宣祖實錄』 卷27, 宣祖 25년 6월 28일(병진).

55) 『訥隱先生文集』 卷17, 『行狀』, “永川官奴希孫等二百餘人 出沒山澤間 與賊通.”

56) 『訥隱先生文集』 卷17, 『行狀』, “公諡以大義 卽帥衆歸公 約與同死王事 義聲益振 朴晉自密陽府使 陞左兵使 避賊入雲門山 晝伏夜行至新寧 公見晉 責以大義 晉不聽 遂入靑松 晉爲節度已數月 慚無功 欲沮抑義兵.”

57) 『鶴峯集』 附錄, 卷1, 『年譜』, “永川鄭世雅 曹希益 郭懷瑾等六十餘人 使人晝伏宵行 上書願奉節制.”

병대장으로 삼아 여러 현의 의병들을 통솔하게 하였다.⁵⁸⁾ 이 무렵 박의장은 죽장현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상황에서 권응수의 요청에 따라 영천성 수복 전투에 참전하였다. 영천성 전투에 앞서 영천에는 경주관관 박의장의 관군과 의병장들의 병사 수를 합하여 총 3,560~3,970명이나 운집하였다.⁵⁹⁾

박의장이 영천성 수복 전투에 참전하게 된 동기는 『관감록』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박의장이 주둔한 죽장현은 경주의 북쪽, 영천의 동북쪽에 위치한 지역이다. 권응수의 영천성 수복 계획에 있어서, 영천 동북 지역에 주둔한 관군 박의장의 참전은 전투력 강화에 필수적이었다. 또한 박의장도 경주성 탈환을 위해 영천에 주둔한 일본군을 격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참전하였다고 생각한다. 즉, 경주성을 탈환하기에 앞서 영천성이 탈환되면, 경주성 탈환 전에 배후의 일본군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중요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박의장은 경주성을 탈환하기 위한 전초전으로서 영천성 수복 전투에 참전하여 전공을 세웠다. 박의장은 영천성 수복 전투의 공로로 善功監副正에 제수되었다.⁶⁰⁾ 영천성 전투의 승리는 우선 수적인 우위와 함께 관군과 의병의 효율적 군사작전이 가져온 결과라고 생각한다.

영천성 수복 전투는 패퇴를 거듭하던 조선군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때 경상좌병사 박진은 운문산에 있다가 다시 청송 安德으로

58) 『鶴峯集』附錄, 卷1, 「年譜」. “差前奉事權應銖爲左界義兵大將.” : 『訥隱先生文集』卷 17, 「行狀」. “時金文忠公誠一爲招諭使 永川義陣上書言諸守將竄伏深山 稍稍出頭 沮抑義兵而義兵無所稟命 願奉節制 招諭使慰勉之乃曰 奉事權應銖盡心召集 累却賊兵 其令爲義兵大將 諸軍受其指揮 遂以公爲大將 領諸縣義兵.”

59) 최효식, 「壬辰倭亂 중 永川城 탈환전투의 고찰」, 『大丘史學』 제47집, 대구사학회, 1994 : 『임란기 경상좌도 의병항쟁』, 국학자료원, 2004, 208쪽.

60) 『觀感錄』, 「家傳」. “七月 遂約義兵將權應銖 先腹永川 捷聞 兼授善工監副正.” 「가전」에는 의병장 권응수와 함께 영천성 수복 전투에 참전한 공적을 인정받아 선공감부정을 제수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영천성 전투는 『宣祖實錄』에 7월 28일로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15일. 壬申). 告身을 통해서도 선공감부정에 제수된 것이 확인된다(한국학중앙연구원 편, 『古文書集成』 82권, 2005, 告身 36, 26쪽). 그러나 『觀感錄 附東槎錄』, 「行狀草記」에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진을 옮겨, 박의장이 일본군을 격파한 전공을 듣고서 약간의 군사를 보내 지원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8월 20일 경상좌병사 박진은 13군의 관병을 동원하여 경주성을 탈환하고자 하였다. 박진이 주도한 제1차 경주성 탈환 전투는 영천성 수복 전투에 참가했던 전투 병력의 2배가 넘는 1만여 명의 군사들이 야간을 이용하여 작전을 수행하였다.⁶¹⁾ 그러나 박진은 야간에 40여 리를 행군하여 경주에 도착한 뒤 척후병을 두지 않아, 1만 군사 대부분이 일본군의 매복 작전에 걸려 전사하였다.⁶²⁾ 박진의 경주성 탈환 계획은 전술 운용의 부채만을 확인한 채 실패했다. 이 전투가 이른바 박진이 주도한 제1차 경주성 탈환 전투인 것이다. 『연려실기술』 「선조고사본말」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7월에 박진이 좌도의 군사 만여 명을 거느리고 경주성 아래에까지 쳐들어 갔는데, 적군이 몰래 북문으로 나와 무방비 상태에 쳐들어왔다. 박진이 안강으로 도망와서 다시 결사대 천여 명을 모집하여 성 아래 잠복하고 있다 ... 이튿날 드디어 성을 버리고 서생포로 도망갔다. 박진이 드디어 경주성으로 들어가서 남아 있는 곡식 만여 섬을 얻었다. 조정에서 듣고 박진을 가선대부로 승진시켰다.⁶³⁾

위 기사의 내용은 『난중잡록』에 나와 있는 박진의 제1차 경주성 전투 상

61) 『亂中雜錄』 卷2, 壬辰下. “慶尙左兵使朴晉 與諸壯士會于安康 以軍官權應錄判官朴毅長爲先鋒 率十六邑兵萬餘名夜行四十餘里 平明薄慶州城 募壯士焚城外人家 烟焰漲天 咫尺不分 大軍圍而攻之 賊兵自州東十餘里 不意突進 襲我軍後.” 『亂中雜錄』에는 16고을의 1만여 군사가 경주성 전투가 참가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觀感錄 附東槎錄』, 『行狀草記』에는 13고을의 군사를 합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行狀草記의 내용을 통해서 전투가 8월 20일에 벌어진 것을 알 수 있어 전후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최효식은 『경주읍지』에 8월 20일, 권응수의 『白雲齋實記』에는 동월 22일로 되어 있어 마치 3일간 전투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병력 수는 여러 문집을 참조하여, 그중에 孫晔이 전투에 참가한 정황상 『龍蛇日記』에 나와 있는 11읍 3만 7천여 명이 신빙성을 갖는다 하여 이를 취하고 있다(최효식, 위의 책, 57쪽).

62) 『亂中雜錄』 卷2, 壬辰下. “大軍驚潰 將士棄甲投兵而走 賊乘勝趕殺 橫屍相枕 西川盡赤 慶州永川奮義之士皆死... 蓋前一日彥陽之賊 來藏深谷 偵俟我軍 而諸將不察 以致偵軍 人皆痛之.”

63) 이규익 편, 『국역연려실기술』 IV, 민족문화추진회, 1977, 231~232쪽.

항과는 전혀 다르게, 7월에 경주성을 탈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연려실기술』에는 8월에 경주성 탈환 전투에 실패하여 패퇴한 기록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두 사료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 때 박진이 주도한 제1차 경주성 탈환 전투의 실패 내용과 『관감록』에 보이는 제2차 경주성 탈환 전투의 승전에 관한 내용이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박진이 제1차 경주성 탈환 전투에서 패퇴한 10여 일 후, 다시 경주성 전투를 감행하였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또한 박진은 이때 관찰사 김성일에게 가 있던 상황이라 경주에는 부재 중이었다.⁶⁴⁾ 반면 박의장은 박진의 제1차 경주성 탈환 전투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작전으로 경주성을 탈환하였다. 박의장은 박진의 전략으로는 일본군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9월 7일 박의장은 야음을 틈타 경주성에 접근한 후, 비격진천뢰를 이용하여 성 안에 있는 일본군을 효과적으로 제압하였다. 박의장은 다음날 밤 경주성을 버리고 달아나는 일본군을 추격하여 수급 30여 顆를 얻었다.⁶⁵⁾ 이로써 박의장은 4월 23일 경주성을 일본군에게 내준 후 약 5개월 만에 경주성을 탈환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 전투가 이른바 제2차 경주성 탈환 전투였다.

경주성 창고에는 곡식 4만여 석이 남아 있어 군량을 보급하는 데 넉넉하였다.⁶⁶⁾ 이때 경상좌병사 박진은 安康에 주둔하고 있었고, 박의장이 홀로 성 근처에 진을 치고 있으면서 밤마다 火箭을 쏘아 일본군을 물리쳤다. 그러나 박진은 경주성 탈환을 자신의 공으로 조정에 보고하였다.⁶⁷⁾ 이러한 박진에 의한 왜곡된 전공 보고가 지금까지도 유효한 채로 남아 있다. 『한국사』 9권에는 경주판관이 박진⁶⁸⁾이라고 잘못 기술되어 있을 정도이다. 그

64) 최효식, 앞의 책, 64쪽.

65) 『觀感錄 附東槎錄』, 『行狀草記』, “府君率驍勇夜薄城下 放震天砲 城中賊徒焦死者甚衆 驚惶擣魄 聚首呼噪翌日夜 遁向釜山追斬三十餘級.”

66) 『觀感錄 附東槎錄』, 『行狀草記』, “即日率兵入城 得倉穀四萬餘石 一境與列邑軍民 咸賴其積.”

67) 『觀感錄 附東槎錄』, 『行狀草記』, “時晉率諸軍留駐安康 … 府君獨與手下將士 乘夜放火 竟至却賊 而晉以節制由己 自爲己功 不以實啓.”

68) 국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80쪽.

에 대한 사실 관계의 확인과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박의장은 경주성을 탈환한 후 군사를 보내어 언양과 울산으로 통하는 길목을 막아 울산에서 부산으로 다니는 길을 끊었기 때문에 영천과 신령을 통하는 길도 비로소 통하게 되었다.⁶⁹⁾ 박의장이 주도한 제2차 경주성 탈환 전투는 육전에서 관군의 주도로 영남의 巨鎮인 경주를 탈환한 것이었다. 그가 일본군을 서생포 지역으로 몰아냄으로써, 그들의 군사 작전과 점령정책에 타격을 주었다는 데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4. 경상좌도 방위활동의 전개

(1) 바곶전투의 승전과 강화협상기의 활약

明軍은 평양성 탈환 이후 일본군과 강화협상으로 임진왜란을 종식시키려고 하였다. 이른바 강화협상기에 돌입하였던 것이다. 한편 경주판관 박의장은 1593년(선조 26) 3월에 군사 3백 명을 거느리고 바곶에서 일본군 2천여 명을 격파하는 승전을 올렸다.⁷⁰⁾ 이 승전은 명군이 조선군에 대해 일본군과 교전을 금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거둔 것이었다. 박의장은 퇴각하는 일본군을 15리나 추격하여 수급 31과와 말 1백23필을 노획하였다.⁷¹⁾ 선조는 파잠 전투에서 승전한 박의장을 통정대부에 가자하였다. 또한 박의장은 조선 조정이 일본의 병력증파를 우려하고 있는 시점에서, 새 갑옷을 만들어 오는 일본군을 사로잡는 공적을 세웠다.⁷²⁾ 이 밖에도 박의장은 양산

69) 『觀感錄 附東槎錄』, 『行狀草記』. “府君遂游兵彥蔚兩路 日事遮截 賊之自蔚山闌入至釜山上來者 不敢衝斥 永川新寧一路之開拓.”

70) 『觀感錄』, 『年譜』. “三月十日遇賊 于大丘巴峯峴大鑿之 … 五月特命陞府尹.” ; 『宣祖實錄』 卷37, 宣祖 26년 4월 15일(기해).

71) 『宣祖實錄』 卷37, 宣祖 26년 4월 15일(기해).

72) 『宣祖實錄』 卷37, 宣祖 26년 4월 18일(임인). 이 실록기사에서는 박의장의 전공에 대해 서만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박의장이 죽장현으로 들어가 무기를 제조하고, 군

也嶺길을 차단하여 전후 수급 330여 과를 획득하기도 하였다.⁷³⁾

1593년 5월 박의장은 蔚山郡守 金太虛 등과 함께 울산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을 며칠 동안의 교전 끝에 격퇴하였다. 박의장 등의 조선 관군은 울산 부근 전투에서 일본군 수급 50여 과를 획득하였다. 강화협상기에 박의장의 연이은 승전이 조정에 보고되었다. 비변사에서는 ‘근래 군공을 세운 사람은 박의장과 김태허밖에 없으니 파격적으로 논상하여 다른 장수들을 권면할 것’을 선조에게 청하였다.⁷⁴⁾ 선조는 파잠 전투의 승전과 울산전투의 전공으로 박의장을 당상관으로 승진시켜 그의 전공을 치하하였다.⁷⁵⁾ 또한 박의장은 파잠 전투의 전공으로 경주부윤에 제수되었다.⁷⁶⁾

1593년 6월 박의장은 精用한 관병 李慶龍 등 1백 명을 선발하여 먼저 양산군 沙化嶺에 병사를 매복시켜 놓고, 일본군 2백여 명을 棚丁·砲手들로 길 양쪽에서 활과 총으로 난사하게 하여 수급 53과를 斬獲하는 전과를 올렸다.⁷⁷⁾ 박의장은 앞선 2차례의 전투와 양산 사화령 전투에서 소규모의 병력으로 보다 많은 일본군을 매복과 급습을 통한 유격전으로 격퇴하였다. 박의장은 적세가 많은 가운데서도 아군의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지형·지물을 이용한 탁월한 전술 운용을 보여주었다.

선조는 박의장을 비롯한 다른 장수들의 승전을 통하여, 명군과 연합하여 일본군의 본진인 부산성을 공격하여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조선 조정은 경주부윤 박의장을 부산성 공격 계획에 있어서 군사를 調發하고 군량을 공급하는 일을 맡기기에 적합한 인물로 평가하였다.⁷⁸⁾

한편 경상우도에 주둔한 일본군은 부산 연해에 있던 아군과 합세 · 북상

사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降倭 金忠善을 통해서 조총에 대한 기술을 전수받은 것으로 나와 있다. 조총 전수에 관한 간찰을 주고받은 시기가 1592년 6월 14일로 나와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파잠전투에서 조총이 처음 사용되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73) 『觀感錄』, 『巡察使褒啓』, “梁山也嶺之截殺 前後獻馘三百三十餘級.”

74)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古文書集成』 82, 2005, 告身 39, 28쪽.

75) 『宣祖實錄』 卷37, 宣祖 26년 5월 23일(병자).

76) 『觀感錄』, 年譜, “三月十日 遇賊于大丘巴峯峴大鑿之 是月又戰于梁山也嶺破之 四月特陞通政 五月特命陞授府尹.”

77) 『宣祖實錄』 卷39, 宣祖 26년 6월 6일(기축).

78) 『宣祖實錄』 卷40, 宣祖 26년 7월 11일(계해).

하여 함안을 함락하고 진주성 공략을 예고했다. 경상좌도에서는 박의장이裨將李克福에게 군사 3백 명을 거느리고 선산의 일본군을 토벌하게 하여 퇴각하는 일본군을 사살하였다. 울산 太和에 잔류해 있던 일본군은 막사를 불태우고 퇴각하였다. 황산 등지에 주둔한 일본군도 날마다 그 수가 줄어들었다. 조선군은 기장에 주둔한 일본군을 공격 · 섬멸하여 縣治를 수복하였다. 그 결과 군사들이 통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경주 이남의 도로가 점차 개통되어, 경상좌도의 전세는 회복되었다.⁷⁹⁾

박의장은 강화협상기인 1593년 4월 이후 경주 부근의 전투들에서 연이은 승전을 거두어, 경상좌도의 경주로 통하는 도로망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박의장의 활약으로 경상좌도 각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은 부산으로 퇴각하여 성을 쌓고 장기전을 준비하였다. 국지적이나 조선군의 승전으로 각 지역의 일본군은 점령지역에서의 군량미 확보가 어렵게 되었고, 쓰시마 섬(對馬島)에서 군량미를 보급해야만 했다. 이 시기의 경주는 일본군의 재침선언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다. 일본군이 북상하기 위해서는 경상좌도의 경주와 경상우도의 진주가 장애가 되었기 때문에, 일본군은 조선이 경주와 진주에 서로 犄角의 형세를 이루어 重兵을 주둔시킬 것을 우려하였다. 박의장은 부산에 주둔한 일본군이 재차 경주로 북상할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탐을 통해서 일본군이 부산에서 40리나 물러갔고 아울러 침범과 약탈에 대한 소식도 없음을 확인하였다.⁸⁰⁾

1593년 박의장은 기근과 전염병으로 군량의 확보가 어려웠고, 명군의 군량미 보급으로 부담이 가중되었다. 이런 상황을 일시적으로 벗어나기 위해 조선 管糧官 金潤國은 고의로 경주에 경보가 있다고 날조하여 와전 · 망보를 전하였다. 總兵 劉綎은 보고를 접하고, 사실 확인도 없이 즉시 군사를 출병시킨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⁸¹⁾ 김윤국은 일본군의 경주 재침략에 대한 우려와 경주 주둔 명군의 군량미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고자

79) 『宣祖實錄』 卷40, 宣祖 26년 7월 12일(갑자).

80) 『宣祖實錄』 卷41, 宣祖 26년 8월 10일(신묘).

81) 『宣祖實錄』 卷41, 宣祖 26년 8월 12일(계사).

했던 것이다.

일본군이 경주 침범을 예고하고 있던 상황에서 긴장감은 고조되었고, 유정은 경상도가 궁벽진 곳이라는 이유를 들어 철군하려 하였다. 이에 조선 조정은 일본군의 경주부 침입에 대비해서 여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⁸²⁾ 11월 2일 울산에 주둔한 일본군은 3일에 안강을 침범하여 약탈하였다. 백성들이 사방으로 흩어졌고 경상좌병사 高彦伯과 박의장은 퇴각하였다.⁸³⁾ 일본군의 안강부 침범으로 명군은 2백2십여 명의 전사자를 냈고, 경주에 주둔하고 있던 고언백과 박의장도 병력 일부를 잃었을 것으로 생각한다.⁸⁴⁾ 경주에 주둔하고 있던 명군 吳惟忠과 駱尙志는 안강부 전투에서 중과부적이라는 것을 핑계로 일본군과 교전하지 않았다. 그 결과 경주와 안강의 많은 백성들이 약탈·살해당하였다. 안강은 경주와 영천 사이에 있는 지점으로 이곳을 거쳐야 비로소 경주에 이를 수 있는 군사적 요충지다.⁸⁵⁾ 명군은 일본군의 안강부 침범이 미리 예고되었음에도 교전을 회피하였다.

1594년(선조 27) 강화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박의장은 3월 19일에 林浪浦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1천여 명이 언양현으로부터 약탈을 시작하여 경주부 남쪽 20리 되는 지점까지 육박하자, 여러 장수들과 더불어 督戰하여 격퇴하였다. 박의장은 임랑포 전투에서 조선인 포로 3백70명과 소와 말 32필을 되찾았다. 박의장은 임랑포 전투 이후, 좌도 연안에 주둔한 일본군과 대치하였다. 支離한 대치 기간이 지속되었고, 명과 일본과의 강화협상은 파탄으로 종결되어 재차 정유재란이 일어나게 되었다.

82) 『宣祖實錄』 卷41, 宣祖 26년 8월 17일(무술).

83) 『宣祖實錄』 卷44, 宣祖 26년 11월 12일(임술).

84) 『宣祖實錄』 卷46, 宣祖 26년 12월 4일(계축). 고언백의 군사가 1~2백, 박의장의 군대가 6십여 명뿐이라는 기사 내용을 통해 본다면, 같은 해 4월 파잠 전투에서 3백 명의 병력으로 일본군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것에 비하면 병력수가 상당수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85) 『宣祖實錄』 卷41, 宣祖 26년 11월 10일(경신).

(2) 정유재란시 전공과 경상좌병사 成允文과의 갈등

4년에 걸친 명과 일본과의 강화협상은 별다른 성과 없이 파탄으로 종결되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재침으로 1597년(선조 30) 정유재란이 발발하게 되었다. 그러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통지를 보내 진주·경주처럼 군사가 강한 곳은 함부로 먼저 침범하지 말고 반드시 병력이 약한 곳을 먼저 공격하여 일본군의 군세를 확장할 것을 명령하였다.⁸⁶⁾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강화협상기에 여러 차례 경주를 침범하였으나, 군량미를 약탈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전투상황도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고 판단하여 군사력이 약한 지역을 공략하라는 전술적 변화를 꾀하였다.

그러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은 재차 복상을 시도하였다. 1597년 9월 일본군이 다시 경주로 침범하자, 박의장은 재차 정병을 뽑아서 곳곳을 막아 길을 끊었다. 동월에 박의장은 대구 八公山城에 들어가서 수성전을 펼치고,⁸⁷⁾ 29일에 영천에서 전투를 벌였다. 또한 10월 5일에는 안강 전투에서 승리하였다.⁸⁸⁾ 일본군은 경주 이북으로 재복상하려 하였으나, 박의장이 영천과 안강 전투에서 격퇴했다. 박의장의 항전 결과, 일본군은 울산으로 퇴각하여 주둔할 뿐이었다. 사료를 통해 두 전투에 대한 자세한 상황은 파악할 수 없으나, 박의장의 승리는 이후 일본군의 복상을 좌절시킨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조선 정부는 명군이 조선으로 남하할 때 효과적인 작전 수행을 위해 조선의 병마를 삼영으로 分屬시키고 명군 장수와 협조하도록 하였다. 제1영은 충청도 병마절도사 李時彦으로 2천 명을 거느리게 하였고, 평안도 군병 2천 명을 소속케 하였다. 제2영은 경상좌도 병마절도사 成允文으로 2천 명

86) 『宣祖實錄』 卷87, 宣祖 30년 4월 25일(을유).

87) 『觀感錄續編』, 「年譜」, “九月入守八公山城.”

88) 『觀感錄』 卷2, 「呈巡相乞解狀」, “九月 倭寇更肆蠱毒 慶州以嶺南要衝 更逢兇亂 遺民殆盡 府君更練精銳 處處遏截 是月二十九日 與諸將大戰于永川 十月初五日 又戰于安康 賊氣大挫 捲下蔚山 築壘自守 不復舉兵而西.”

을 거느리게 하였는데, 방어사 권응수는 군병 2백 명, 경주부윤 박의장에게는 1천 명을 소속시켰다. 제3영은 경상우도 절도사 鄭起龍으로 1천 명을 거느리게 하였고, 황해도 군병 2천 명과 경상도 방어사 고언백의 군병 3백 명을 소속시켰다.⁸⁹⁾

박의장은 경상좌병사 성윤문의 전령에 따라서 울산과 양산 등지에 성을 쌓고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의 침입에 대비하여 정예병을 매복시켰다. 1597년 11월 5일 경주부윤 박의장은 울산 태수 김태허와 함께 馬等烏에 주둔하고 있었다. 일본군이 조선군의 주둔지를 급습하자, 성윤문의 지휘에 따라 박의장과 김태허는 각각 수급 7·8과를 획득하는 전공을 올렸다.⁹⁰⁾ 박의장은 이 전투에서 군졸보다 먼저 나서 일본군의 선봉을 꺾어 격퇴시켰다.

1597년 9월 이후 박의장은 일본군과 밤낮없는 전투에서 전공을 세웠다. 선조는 그의 전공에 따라 한 자급을 가차하여 박의장의 전공을 치하하였으나,⁹¹⁾ 경상좌병사 성윤문은 박의장과 그 휘하 장수들의 전공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즉, 성윤문이 휘하인 박의장 軍의 전공을 축소·왜곡보고했던 것이다. 그 결과 박의장 軍 내부에서는 전공의 포상 문제를 두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박의장 휘하 29명은 연명으로 군공청에 書啓하려 하였다. 그러나 주장인 성윤문이 일본군과 대치하는 상황이라는 이유를 들어 허락하지 않자, 狀頭 1~2인이 군공청에 訴狀을 제출하였다.⁹²⁾ 이 사건은 단순히 박의장의 휘하 장수 한두 사람이 성윤문을 거치지 않고, 군공청에 군공을 보고하였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박의장 軍 내부에서 전공을 둘러싼 불만이 높았고, 이러한 갈등을 적극적으로 표출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전임 좌병사와는 군공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되지 않았던 데 반해 성윤문과는 휘하 장수들의 전공을 둘러싼 갈등이 심각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89) 『宣祖實錄』 卷94, 宣祖 30년 11월 10일(정유).

90) 『宣祖實錄』 卷94, 宣祖 30년 11월 28일(을묘).

91) 『宣祖實錄』 卷94, 宣祖 30년 11월 28일(을묘).

92) 『宣祖實錄』 卷98, 宣祖 31년 3월 22일(정미).

승정원에서는 박의장의 전공에 대해 모든 사람이 안다고 할 정도로, 전후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승정원은 선조에게 박의장은 군공에 대해 다른 장수들과 다르게 기만적으로 보고하지 않았으니 재고할 것을 청하였다.⁹³⁾ 선조는 박의장의 군공과 관련한 논상 여부를 두고 대신들에게 의논하여 보고할 것을 전교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의장은 조정의 요청에 따라 7백 석의 군량을 확보하여 진상하였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우의정 李德馨의 의견에 따라 ‘박의장은 이미 재상의 반열에 있으므로 논상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특별히 褒獎할 것’을 선조에게 건의하였다. 그 결과 박의장은 앞서 여러 차례의 전공과 군량미 확보를 통한 공으로 戰馬 한 필을 하사받았으나, 박의장의 휘하 장수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포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5. 맺음 말

박의장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인 1591년에 경주판관에 부임하여 이듬해인 1592년 未曾有의 전란을 맞이하였다. 박의장은 일본 제2군 가토 기요마사의 군대의 공격에 대비하여 경주성 수성을 위한 농성전을 펼쳤으나 중과부적으로 퇴각하였다. 그러나 그의 패전은 경상좌도 다른 장수들과 달리 자신의 임지를 재탈환하기 위한 작전상의 후퇴였다. 이와 같은 이해를 전제로 앞서 서술한 내용을 요약함으로써 이 글을 맺고자 한다.

박의장은 경주의 죽장현에서 경주성 탈환을 준비하였다. 반격의 기회를 노리던 박의장은 경주성 탈환을 위한 전초전으로, 영천 의병장 권응수의 요청에 응하여 영천성 수복 전투에 참전해 전공을 세웠다. 영천성 수복 전투의 참전은 경주성을 탈환하기에 앞서 배후의 적을 차단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졌다. 1592년 9월 7일 박의장은 비격진천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경

93) 『宣祖實錄』 卷98, 宣祖 31년 3월 22일(정미).

주성을 탈환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 경주성의 탈환은 박의장이 경상좌도의 방위활동을 위한 군사적 거점의 확보와 경제적 기반인 군량미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1593년 4월 박의장은 대구 파잠 전투에서 소수의 정예병력으로 일본 정규군 2천여 명을 매복 작전으로 격파하는 전공을 세웠다. 파잠 전투의 승전은 명군에 의해 일본군과의 교전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거둔 전공이었다. 박의장은 파잠 전투의 승전으로 경주부윤에 제수되었다. 동년 6월 박의장은 양산 사화령 전투에서 관병 이경룡 등 1백 명의 군사를 매복시켜 일본군을 격퇴하는 전공도 올렸다. 앞선 2차례의 전투로 박의장은 적세가 많은 가운데서도 아군의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지형·지물을 활용한 탁월한 전술 운용을 보여주었다. 또한 파잠 전투와 사화령 전투는 항왜 김충선에게 전수받은 조총을 실전에 활용하였을 개연성이 큰 전투라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있는 승전이였다.

박의장은 새로운 무기인 조총을 적용한 전술과 주변의 지형과 지물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방위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강화협상에 박의장은 지속적으로 경주를 침범하는 일본군을 차단함으로써 통행망의 확보와 민심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그의 지속적인 항전은 일본군의 점령정책에 타격을 주어 도요토미 히데요시로 하여금 전술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명군과 일본군의 4년간의 강화협상이 파탄으로 종결되면서, 일본의 재침략으로 정유재란이 발발하였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군사력이 비교적 강하였던 진주와 경주를 피해 군사력이 약한 곳을 공략하라는 전술의 변화를 꾀함과 동시에 일본군의 병력을 증원할 것을 명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일본군의 경주로의 재복상 시도는 계속되었다. 이에 박의장은 영천과 안강에서 일본군을 격퇴하여 재복상 시도를 차단하였다.

그러나 정유재란기에 세운 박의장과 휘하 장수들의 전공은 상관인 성윤문에 의해서 축소·왜곡보고되었다. 박의장의 휘하 장수들은 직접 군공청에 전공을 보고하여 성윤문의 처사에 항의하였다. 이 사건으로 박의장과 휘하

장수들의 전공을 둘러싼 불만이 높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박의장의 연구는 관군 활동을 구명한 것으로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박의장 연구가 경상좌도 관군 활동 중의 하나의 사례라는 점에서 한계점도 가지고 있다. 향후 경상좌도 관군 연구는 의병활동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원고투고일 : 2010. 6. 29, 심사수정일 : 2010. 7. 16, 게재확정일 : 2010. 7. 27)

주제어 : 의병항쟁, 관군, 경상좌도, 박의장, 가토 기요마사, 경주성 실패, 영천성 수복 전투, 경주성 탈환, 파잠전투, 성윤문

<ABSTRACT>

Park Ui-jang's Defence of the Left *Gyeongsang* Province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in 1592

Jang, Jun-ho

Among Korean scholarly circles research on the Japanese Invasion in 1592 has centered on the righteous troops resistance. This is because of the negative understanding that government troops did not react properly during the early stages of the war and also because interest has centered on the righteous troops who voluntarily rose up and defeated the Japanese.

The Left *Gyeongsang* Province, the area this paper covers, was the first area that the Japanese had invaded and the outcome of the war during the early stages could have changed depending on how the government troops confronted the Japanese. Despite this, during the early stages of the war the government troops of Left *Gyeongsang* Province did not put up much resistance, abandoned their posts and were defeated in battle. It would not be an exaggeration to say that such activity of government troops caused the struggle against the Japanese Army in the Left *Gyeongsang* Province to be viewed solely through the activities of the righteous troops.

But in contrast to other government troop commanders of the Left *Gyeongsang* Province, *Park Ui-jang* despite being defeated in battle by the Japanese Second Army of Kato Kiyomasa, did not abandon his post of *Gyeongju* and reassembled his ranks in *Jukjang* prefecture. Before recovering *Gyeongju* Castle, *Park Ui-jang* distinguished himself by uniting with righteous troop leader Kwon Ung-su and recovering Yeongcheon Castle. In the end, *Gyeongju* Castle was recaptured and the defence of the Left *Gyeongsang* Province continued.

Even during the peace negotiation period when engagement with the Japanese was forbidden, *Park Ui-jang*, Pajam in *Daegu*, distinguished himself by defeating a Japanese Forces of 2,000 with a small, crack unit. This battle of *Pajam* is significant in that muskets, which became known through exchanges with the surrendered general *Kim Chung-seon*, were actually utilized in battle. During the second invasion *Park Ui-jang* distinguished himself also, but his superior officer of the Left *Gyeongsang* Province Commander *Seong Yun-mun* represented the news falsely. Thereupon, *Park Ui-jang* bypassing *Seong Yun-mun*, reported directly to the Office of Military Merit, actively protesting against *Seong Yun-mun*'s conduct.

This paper turns attention to the activities of the government troops of the Left *Gyeongsang* Province under *Park Ui-jang*, which has until now been neglected by scholarly circles. What differentiates this paper from previous research is that, firstly, this is the first full-scale examination of the activities of government troops of the Left *Gyeongsang* Province under *Park Ui-jang*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in 1592. Secondly, although *Park Ui-jang* lost the battle of *Gyeongju* Castle, unlike the other commanders of government troops of the Left *Gyeongsang* Province, *Park Ui-jang* recaptured his place of appointment, and through continuous warfare brought about a change in the strategy and tactics of the Japanese army. Through the above points it is expected that this could become an occasion to re-examine the activities of government troops of the Left *Gyeongsang* Province, different from the previous examination of the activities of the righteous troops of the Left *Gyongsang* Province.

Key Words : Government Troops, Left *Gyeongsang* Province, *Park Ui-jang*, Kato Kiyomasa, Defeated in Battle by the Second Japanese Army of Kato Kiyomasa, Recovering *Yeongcheon* Castle, Recapture of *Gyeongju* Castle, the Battle of *Pajam*, *Sahwaryeong*, *Seong Yun-mun*